

2010 MAR-APR Vol.80 **03·04**

건강한 세상을 향한 네비게이션 -



인하대병원



표지설명 : 복과 장수를 의미하는 복수초(福壽草)

겨울의 잔설을 뚫고 제일 처음 피는 꽃으로

인하대병원의 또 다른 시작과 강인함을 표현하고 있다.



2010. 03+04

CONTENTS

Mar. Apr Vol. 80

04	취임사	혁신과 효율, 그리고 주인의식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
06	신임 임원 및 보직자 인사말	최고의 병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08	행복을 전하는 글	지금이 바로 새 출발점
09	Well-being Report	군침 도는 파스타의 모든 것
12	아이티 의료봉사	"무엇을 상상하던지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될 터"
16	의학정보	늘어나는 암환자 발생, 발전하는 방사선 치료
20	건강책갈피	맞춤형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척추질환
22	운동처방사의 운동법	요통과 운동
24	글이 머무는 풍경	감동을 주는 간호사를 꿈꾸며 오늘도 달린다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즐겁다
28	순간포착	'사랑'
29	감사의 글	감사의 편지
30	사회복지소식	오늘도 임벽을 넘는 종경이
31	특목약물상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백일해와 황열
32	불임부부 사업안내	2010년 난임(불임)부부 정부지원 사업 안내
33	협력병원탐방	송도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 의원
34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파랑새 소식
38	알립니다	인사동정 / Global Inha 퀴즈 퀴즈 제53회 / 발전기금 / 무료공개강좌

혁신과 효율, 그리고 주인의식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



존경하는 총장님, 부총장님, 재단이사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신뢰를 주시고, 인하의료원 경영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이사회와 총장님을 비롯한 인하가족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병원장 임기 동안 병원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애정이 저의 의료원장 취임으로 연결된 밑거름이라 믿으며,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중책을 맡는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넘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책임감으로 인하여 한없이 어깨가 무거워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인하의료원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두익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2년의 임기동안 함께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신 홍기천, 박원 부원장님, 김영모 기획조정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의료계는 하루가 다르게 대형화, 전문화, 국제화, 융합화라는 시대 흐름을 타고 무한경쟁 속에 있으며, 특히 인근지역 병원들의 암센터 및 국제병원 신설과 BIO산업 발전이 우리에게서 기회이자 험난한 위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창출로 전환하여 한 단계 높은 도약을 하기 위해서

는 고객감동경영, 글로벌 역량 확대, 우수 인재양성, 고효율 경영체제 확립 등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교직원 여러분에게 '혁신과 효율 그리고 주인의식' 3가지의 기본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변화와 혁신입니다.

일하는 습관 고치기, 불필요한 일 줄이기, 새로운 가치 창조 등 모든 분야에서 코스트 마인드를 가지고, 성과중심으로 혁신을 해야 합니다. 혁신이란 경쟁우위를 창출하거나 잠재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역량을 구비하기 위해 기존의 것을 새롭게 바꾸거나 고치는 것입니다. 맡고 있는 일에 대한 본질과 서비스의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둘째, 효율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효율과 생산성은 우리 인하의료원의 생명 줄이라는 인식하에 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와 지출에 대해 처음부터 적정성을 다시 생각해보고, 관행적 지출행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왜 투자해야 하는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3번씩만 반문을 해보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해온 일 중에 없애야 할 요소는 없는지, 동일업계의 표준 이하로 낮추거나 그 이상으로 올려야 할 요소는 없는지, 블루오션 관점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요소는 없는지 등을 따져 보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하가족 모두가 주인이 되면 전혀 새로운 인하의료원이 될 것입니다.

환자 스스로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병원, 구성원간에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가진 조직,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의료원은 우리 교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저는 앞에서 말씀 드린 핵심가치와 기본원칙을 가지고, 성장기반의 확충과 브랜드파워를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사명감으로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재임 중에 추진할 핵심목표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인하의료원의 New Vision을 제시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600병상 규모의 병원증축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 산하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인사 등 명실공히 자립형 의료원 모델을 목표로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임상각과 주임교수와 병원의 임상과장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실운영을 통하여 학생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의전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산학연 R&D 기반의 선진형 Medical Complex를 구축하기 위해 부속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연구중심병원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기구조직개편에서 연구소장을 부원장으로 격상하고, 기획조정실에 의료정책과 발전전략을 담당 할 경영전략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속병원은 임상연구센터, 지역임상시험센터, 알레르기 환경보건센터, 유타-인하DDS연구소, 임상시험센터의 FERCAP인증 등 최근2년간 국내 최상위 수준의 연구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HT고속화사업, 연구특성화센터, U-healthcare사업을 유지하여, 이를 3대 축으로 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고효율 경영모델과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대폭 확충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고효율 경영구조로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 성과급제를 대폭 개선하고, 학술지원비를 신설하여 3월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1~2급 관리직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전문기술직 보직에는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 및 보상제도를 금년도 중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이미 발표한 조직개편 및 보직인사에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열정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의 본질에 충실하고 변화를 주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영원칙과 경영방침에 충실하여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보상과 인사에서 우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끝으로 상반기에는 JCI인증이 부속병원의 최대 현안과제입니다. 이제 4개월 남은 본격 준비기간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1,200여 개의 Global standard기준을 적용하고 생활화하여, 고객에게는 신뢰받고,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인하대병원으로 거듭납시다.

2010년은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미 교직원 여러분께서 보여준 화합과 배려,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열정과 결의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인하의료원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좌표는 바로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또는 우리의 후배들이 느낄 자랑스러움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여,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찬란하고 위대한 인하의료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2일

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박승림

최고의 병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1진료부원장 _ 박금수 교수

대내외적으로 의료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제1부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으로 걱정이 앞서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직무를 열성으로 수행하여 오신 우리 식구들이 있기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은 미미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면 최고를 향한 발걸음이 가벼우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직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가족 모두가 신뢰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열성을 다해 여러분을 지원하고 여러분이 가진 어떤 어려움도 함께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병원 식구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의 당면과제는 6월 28일부터 5일간 JCI 인증을 받는 문제로 지난 2월 28일부터 본 평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서 모든 직원이 자기가 맡은 부분을 완수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합심하여 잘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일부 준비가 미진한 분야도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보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라도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식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힘을 발휘하여 모든 면에서 완벽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모두의 염원인 제2병원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원건립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병원은 우리가 만든다는 자부심과 열정으로 우리 각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한다면 능히 극복하고 최고의 병원을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3~4월은 새로운 우리 식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반가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자칫 업무가 익숙하지 않고 손발이 안맞아 문제가 야기되기 쉬운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자그마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화목한 일터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병원 식구 모두가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고 격려해 주어 머지않아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미션이 성취되는 아름답고 행복한 한가족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2진료부원장 _ 김원홍 교수

안녕하십니까? 제2진료부원장을 맡게 된 김원홍입니다.

다가올 JCI 인증획득, 인근지역들의 암 센터 및 국제병원 신설 등으로 험난한 위기의 결정 시기에 막중한 보직을 맡게 되어 책임감과 함께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개인 이래 지난 14년간 병원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혼연일체가 되어 교직원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생각 해 볼 때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2진료부에서는 단순히 진료에만 머물지 않고 의사들을 위한 교육과 보다 우수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연구에 계속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외연 확대와 함께 환자중심의 병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긴밀한 협력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초 일류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내외 고객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교직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부원장 _ 김철웅 교수

안녕하십니까.

병원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 중 '새로운 보직' 을 받은 '연구부원장' 김철웅입니다.

21세기를 흔히 '생명과학' 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의료산업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져 있고, 21세기를 주도할 경제성장 엔진으로서 바이오산업(BT)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부 연구지원 업무로 시작되었던 임상의학연구소가 이젠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초기의 어려움과 연구 인프라 구축을 마친 정착의 시기를 지나 '연구중심병원' 목표를 위해 도약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소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관련 연구지원 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연구하는 의사가 대접 받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의과대학 '의과학 연구소' 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기초의학 연구결과와 임상 경험의 접목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과 효율 그리고 주인의식' 3가지의 기본원칙만 지켜진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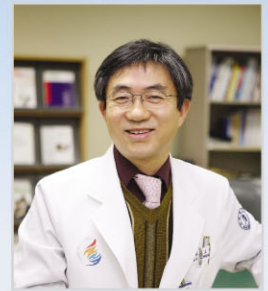
기획조정실장 _ 성도환 교수

안녕하세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을 맡아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의료원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신 경영방침 3대 기본원칙인 효율, 혁신, 주인의식과 경영목표 New Vision제시, 연구중심병원 기반구축, 경영혁신모델 개발을 철저히 뒷받침하여, 의료원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내실경영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일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성과를 지향하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일 처리를 행동원칙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청할 때에 기꺼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수련부장 _ 최선근 교수

1년 전 의전원장님의 부름으로 의전원의 임상교육부장 보직을 맡았었던 첫날을 기억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찌 시작해야 할지, 미려한 제 능력에 넘치는 일을 맡아 오히려 모교에 누가되지는 않을까... 제 스스로 많은 걱정과 부족함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할 일도 많았던 지난 1년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의료원장님의 부름을 받고 모교병원의 교육수련부장으로서는 또 다른 시작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 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보직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낯섦이 덜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는 학생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 한층 더 성장한 전공의 선생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는 사실에 또 다른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육수련부장으로서는 제가 아닌 20여 년 전 제가 그랬었던 것처럼 그들의 입장에서 같이 호흡하고 몸으로 부대끼면서 다가서고 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편일률적이 아닌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맞는 교육으로 내재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합니다. 인하대병원 수련과정을 마친 젊은 의사라면 어느 곳에서든 신뢰하고 환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학교육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변화와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언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과 배우는 자세로 우리 인하의료원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의사들의 교육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새 출발점

- 오히라 미쓰요의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중에서 -

인생이란 하루하루가 훈련이다.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터전이다.
실패도 할 수 있는 훈련장이다.
살아있음이 흥겨운 훈련장이다.
지금 이 행복을 기뻐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행복해지랴.
이기쁨을 발판삼아 온 힘으로 나아가자.
나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이 곳에 있다.
"지금 여기서 노력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노력하라."

드라마 '파스타' 때문에 ~

군침 도는 파스타의 모든 것

요리사의 꿈을 위해 역센 남자들로만 득실거리는 이태리 식당 주방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역척 여성 나만의 요리사 서유경(공효진 역), 주방의 셰프(이선균 역)와의 러브라인이 흥미로운 드라마 '파스타',
이 드라마가 방송된 다음 날, 주변의 파스타 집은 어제 드라마에서 들었던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 를 주문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탈리아 대표음식인 파스타, 이제 제대로 알고 웰빙식으로의 파스타를 즐겨보자.

파스타에 대한 기본 상식 좀 짚아볼까?

파스타의 종류는 재료에 따라 150여 가지, 면의 형태상으로 60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우선 면이 적은 상태인 생파스타와 다른 상태인 건조 파스타로 나눌 수 있다. 가정에서는 보통 건조 파스타 면을 이용한다.

‘파스타’란 면의 종류를 말한다. 생김 모양에 따라 긴 것과 짧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긴 것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파게티가 있고 링귀네, 티아린 등이 있는데 이것은 면의 굵기에 따라 나뉜 것이다. 짧은 것 가운데는 펜네와 푸실리 등 다양한 모양이 있다.

또 면 반죽에 계란이 들어갔느냐, 아나나로도 분류되는데 프레시는 달걀을 넣은 것으로 라자냐, 탈리아텔레, 페투치네와 같은 생면을 말한다. 파스타의 종류는 재료에 따라 150여 가지, 면의 형태상으로는 60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스파게티 -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국수로 굵기가 다양하며 색을 넣을 수도 있다.

푸질리 - 껍배기 모양으로 꼬아진 국수로 파스타 가운데 인기있는 것 중 하나다.

라자냐 - 소스 위에 라자냐 그 위에 다시 라자냐 하는 식으로 겹겹이 요리하는 파스타이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 요리하는 것이 좋으며, 소스를 얹은 다음에는 오븐에 넣어 익힌다.

미카로니 - 샐러드에 주로 이용하는 파스타로 쫄깃쫄깃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너무 오래 삶지 않는 것이 좋다.

파르팔레 - 나비 모양의 파스타로 보는 것만으로도 맛을 느낄 수 있다.

탈리아텔레 - 스파게티보다 넓은 면을 가지고 있는 파스타. 색을 넣기에 따라서 초록색과 일반적인 색이 있다.

스파게티 한 접시와 라면 한 그릇의 비교

흔히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피하는 경향이 많다. 밀의 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파스타 역시 밀가루로 만들 것이다 보니 살찌는 음식으로 오해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파스타를 제조 할 때 깨끗한 드림 휘트밀을 사용하도록 법규로 정해져 있어서 인공 착색료나 보존제등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

파스타는 쌀에 비해 칼슘 9배, 철분이 15배 많이 함유돼 있고, 요리시 사용되는 올리브유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파스타는 약 70%의 당질을 함유하는데, 이는 체내에서 고스란히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글리코겐은 기본 에너지 성분으로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동의 지속 가능 시간이 길어지고 체내에서 가장 먼저 소비되는 영양소라 살이 찢 우려가 적다. 여기에 웰빙 식의 대표주자인 토마토를 더해 영양도 그만이다.

지중해식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불리는 파스타, 이는 식물성을 기본으로 하므로 체내에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파스타가 식물성음식이므로 살 찢 위험이 적고 어떤 소스를 곁들이느냐에 따라 영양소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최대의 적, 라면 한 그릇과 토마토소스를 얹은 스파게티 한 접시를 비교해보자. 토마토소스 파스타 한 접시의 열량은 390kcal로 다이어트 한 끼 식사로는 적당하다. 반면 라면 한 그릇은 열량이 525kcal로 훨씬 높고 지방의 양도 상당하다. 그러나 크림소스 스파게티는 예외임을 기억하자.

파스타는 소스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이탈리아 정통식과 현재 우리가 즐겨먹는 한국식 파스타와는 거리가 멀다. 정통식에 비해 우리는 지나치게 소스를 듬뿍 묻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드라마 욕심 때문에 정통 파스타인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를 먹어보면 다소 실망하는 경우도 생긴다.

파스타의 종류

파스타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소스만 해도 볼로냐는 다진 고기와 포도주가 들어간 리구이고, 나폴리는 토마토와 바질을 쓰며, 제노바는 바질, 잣, 치즈를 갈아 올리브기름에 갠 페스토, 시칠리아는 마늘과 고추를 많이 넣은 해물 파스타를 말한다.

1. 드라마 때문에 떠오른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

알리오 올리오는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 서유경(공효진 분)이 주방보조로 근무하는 레스토랑을 떠났다가 다시 복귀하는 이유로 등장하는 메뉴이다. 드라마에서 가장 '간단한 파스타'로 언급되기도 했지만 단순



파스타~~ 이런 것이 궁금해!!!!

알 덴테

파스타를 먹을 때 조금 딱딱하게 덜 익은 느낌, 이것을 바로 알 덴테(al dente), 약간 덜 익힌 꼬들꼬들한 라면이 더 인기 있는 것과 비슷한 셈이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파스타에 와인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아 딱딱한 면도 와인과 함께 마시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진다. 모든 파스타가 알 덴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생면은 꼭 익혀야 하고 라비올리 같은 만두나 리자나 같은 오븐구이도 꼭 익혀야 제 맛이 난다.

피클 없는 파스타, 김치 없는 밥상과 같다?

파스타에 피클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피클은 서양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의 입맛을 상큼하게 만들어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정통 파스타에는 한식에 김치처럼 피클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지어 한국식 파스타 레스토랑에서는 깍두기까지 주는 곳도 있다. 그저 알고나 먹자~~~

크림소스 까르보나라는 없다?

이탈리아에는 이태리 타월과 생크림을 넉넉히 넣은 까르보나라 소스는 없다. 이탈리아식 까르보나라는 달걀 노른자를 소스로 해서 치즈를 뿌려먹는다. 아마도 이탈리아에서 까르보나라를 먹는다면 비위에 안 맞을 수도 있다.

파스타 면을 삶는 요령

물은 넉넉히, 물의 끓는 점을 높이기 위해 소금을 넣고, 조리법보다 1분 덜 삶는 것이 요령이다. 벽에 달라붙으면 맛있게 익은 면이라고 알고 있는데 면은 사실 익으면 무조건 달라붙는다. 덜익은 면을 제외하고 꼭 퍼졌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깊은 맛 을 느낄 수 있어 알리오 올리오를 보면 셰프의 실력이 보인다. 마늘, 올리브 오일, 소금, 치즈가루 등 기본적인 재료로만 맛을 내는 알리오 올리오는 우리 식단의 흰쌀밥과 같은 존재다.

레스토랑에서 가장 싼 파스타이다 면과 올리브 오일, 마늘만으로 만들어 내는 가장 단순한 파스타다. 드라마의 영향인지 한 달에 2~3번 정도 주문이 있을까 말까 했었지만 요즘은 부쩍 주문이 늘었다고 한다.

2. 셰프 입에서 많이 불리워지는 봉골레 스파게티

'봉골레'는 이탈리아어로 '조개'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보통 바지락을 쓰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모시조개를 쓰는 경우가 많다. '파스타'에서 서유경은 그 점에 착안해 레스토랑을 찾은 이탈리아 대사에게 모시조개로 만든 봉골레 파스타를 대접해 극찬을 받기도 한다. 향긋한 조개 향에 올리브 오일이 적절히 어우러진 봉골레는 오일 파스타류로 마늘과 소금으로 맛을 내어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다.

3.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스파게티에 베이컨과 햄을 넣고 까르보나라 소스에 버무린 파스타 요리이다. 까르보나라는 드라마 '파스타'에서 주방에서 쫓겨난 서유경이 혼자 쓸쓸하게 만들어 먹었던 대표적인 크림 소스 파스타다. 이탈리아식 까르보나라는 달걀노른자, 베이컨, 파마산 치즈 등으로 볶

아내며, 소스가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생크림을 넣어 소스를 풍성하게 만든 것은 미국식 까르보나라이다.

4. 볼로네즈

볼로네즈는 드라마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국내에선 가장 익숙한 파스타다. 볼로냐 사람이라는 의미의 볼로네즈는 미트 소스 스파게티의 원조로, 볼로냐 지방에서 아재와 쇠고기, 돼지고기, 토마토 소스를 푹 끓여 만들어 먹었던 것에서 유래됐다.

1980년 대 말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모토로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슬로푸드' 운동은 20년 만에 10만 회원을 자랑하며 한국에도 지부가 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음식인 파스타 역시 여유 식, 슬로푸드의 대표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파스타는 전체 요리 중의 하나가 아니라 '한 끼' 식사대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토마토, 크림소스 등을 듬뿍 묻히는 것도 우리 한국식 파스타 스타일이다. 파스타는 어떤 소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칼로리가 천차만별이 된다. 제대로 알고 건강을 생각하여 웰빙식 파스타를 '폼' 나게 즐겨보자.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내가 1진에게 듣고, 3진에게 건넨 말
 “무엇을 상상하던지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될 터”

글 · 김수진 간호사 | 제 2병동간호팀 (분만실)
 사진 · 김종민 주임 | 홍보팀

thank you, hai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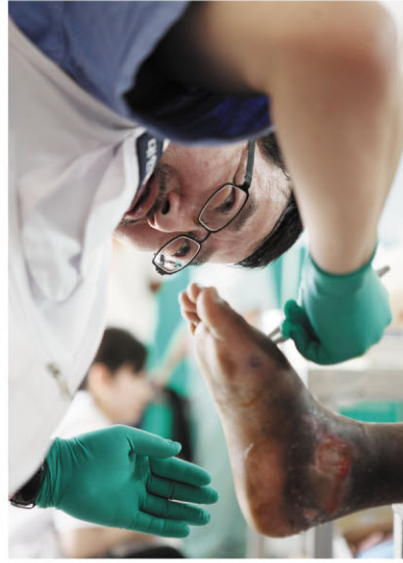
“무엇을 상상하던지 그 이하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여시간의 비행을 거쳐 땅에 적응하기도 전에 우리를 맞이하는 1진 단장님의 첫인사였다.

1월 12일, 중남미의 최빈국 아이티(haiti)에서 진도 7.0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30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낸 이 지진은 전세계의 도움의 손길을 아이티로 불러들였다.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의사협회의 공동주관으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티 국민들을 위한 긴급구호가 시작되었다. 총 4진의 의료팀 중 우리는 이홍식 단장님(본원 마취통증의학과 부교수)을 중심으로 본원 의료진과 개인지원자를 포함하여 총 20인의 의료지원단이 2월 9일 출국하게 되었다.

1진과의 인계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마친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8시간을 달려 아이티로 들어가게 되었다. 시작도 하기 전에 30도를 넘는 더위와 시차덕분에 모두 녹초가 되었다. 우리가 일하게 될 병원은 텔마지역의 평화대학병원(Hospital University De La Paix)으로 아이티에서는 두 번째로 큰 병원이었으나 시설은 우리나라의 60년대 정도로 낙후되어 있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병원관계자들의 비협조로 시작부터 난관일 수밖에 없었다.

2월 11일 2진의 1차 진료가 시작되었다.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외과 4개 과로 총 210명의 환자를 보았는데 1진과 2진사이의 2일이라는 공백 때문에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었다. 내과환자들은 주로 PTSD(외상 후 증후군)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진이 난 이후 잠을 자지 못하거나 두통, 복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고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피부병이나 장염, 감기도 많았다.





외과환자들은 지진으로 인해 골절이나 창상이 대부분이었는데 1차치료를 받았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감염이 보이거나 치료의 시기가 늦어진 경우가 많았다. 진통제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국소마취제에 의존하여 모든 치료가 이뤄졌는데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참아내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했다. 그나마도 어른환자들은 나은 상황이었다. 이방인이나 치료에 대한 공포심에 상처의 통증까지 더해져 소아환자들의 경우 의료진이 3~4명 달려들어야 겨우 치료가 가능했다. 먹지 못해 지친 아이들이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모습에 우리도 눈물을 참아야만 했다. 오후에는 비교적 한가해져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눌 수 있었는데 모두들 피곤하고 힘들다 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한정된 진료재료와 약품으로 만족스런 치료가 되지 못했지만 누구 하나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 없이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하며 돌아갔다. 사탕 하나에 맑게 웃는 아이들, 항생제 몇알에 깊게 인사하는 어른들, 이제는 그만 아프고 힘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진부터는 모바일 진료라고 하여 병원에 오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난민촌에 직접 진료를 가게 되었다. 터키 적십자에서 관리하는 텐트난민촌이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진료인원을 제한하고 다음날에도 진료한다는 것을 설명한 후에야 진료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부모를 잃었거나 떨어져 병원가기 힘든 소아환자들이 많았는데 감기나 설사 등이 주호소였다. 한국이었다면 약먹고 수액 맞으며 사랑받으면 1주일이면 털고 일어날 질환이 건만 비위생적인 환경과 부족한 약 때문에 병을 더 키우고 있었다. 대부분의 소아들이 약이라고 시럽 한 병을 주거나 포장 안 된 알약을 주면 그저 좋은 것 인 줄 알고 한꺼번에 먹어서 약물부작용이 많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비타민 한 알과 시럽약 한 컵씩을 먹이기로 했는데, 약 먹기 싫어하는 것은 한국이나 아이티나 어린아이



Hope against hope

▲ 김수진 간호사(필자)

들은 매 한가지였다. 먹기도 전에 울고 어찌다가 먹으면 삼킬줄 몰라서 깨물어 먹다 토하고 나도 깨물어 먹는 것을 따라했다가 입안에 쓴맛이 떠나질 않아 고생했다. 아이들을 위한 사탕을 비장의 무기로 가져갔는데, 이곳에서 사탕을 나눠준다는 소문이 나면 다른 캠프에서도 통제하기 힘들어진다고 하여 주지 못하게 했다. 돌아오는 내내 어머니속의 사탕무게만큼이나 내 마음도 무거웠다.

우리는 WHO에서 실시하는 백신접종사업에 국제적십자연맹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도 했는데, 난민촌에 들어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아이티 간호학생들의 supervisor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소독되지 않은 솜을 비눗물에 찍어 알콜솜을 대신하고 23gage(꽤 굵은 바늘)는 거뜰히 넘어보이는 주사기로 예방접종을 하였다. 의료의 혜택을 거의 받아보지 못했던 터라 주사에 대한 공포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상당했는데 주사 맞기 전에는 소리지르며 피하다가도 접종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호기심 어린 눈을 하며 텐트주변을 맴돌거나 장난을 거는 사람들은 순수 그 자체였다. 덕분에 우리도 웃을 수 있었다.

타국에 오니 우리의 생활은 한가족이 되었는데, 엄마(김신애 수간호사님)를 중심으로 언니, 오빠들과 밥도 지어먹고 삼겹살 파티도 하고 설날에는 떡국도 끓여먹었다. 물 세바가지의 약간은 찻집한 샤워에도 감사했고 야전침대에 누워 흠바람 맞아가며 지는 잠도 달콤했다. 달도 뜨지 않는 밤하늘에 수놓아진 별들을 보며 하는 이야기로 정을 나누며 아이티를 추억했다. 지난 13일간 좋은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좋은 일을 했다. 3박자가 골고루 맞아 더없이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무엇을 상상하던지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3진에게 전하는 나의 마지막 인사말이다.

늘어나는 암환자 발생, 발전하는 방사선 치료 360도 회전하면서 치료 가능한 래피드아크까지

인하대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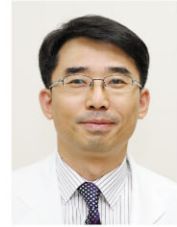
VARIAN

civco
C B A

civco
C B A

인하대병원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암환자 발생이 매년 약 3%씩 증가 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암의 3대 치료법인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제치료 중에서 최근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김우철 교수 | 방사선 종양학과

• 전문분야 :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 진료시간 : 월(오후), 화, 목(종일)

• 문의 : 방사선 종양학과 ☎032-890-3070

사이버나이프센터 / IGRT 센터 ☎032-890-3076

CyberKnife & RapidArc

방사선치료의 발전

방사선치료는 최근 장비와 컴퓨터 제어 시스템의 발달에 힘입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주로 2차원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었다. 2차원치료란 환자의 몸안에 있는 암 덩어리에 대해서 전체 보다는 한 단면만을 생각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3차원치료가 보편화 되었다. 3차원치료는 컴퓨터 토모그래피(CT)를 이용한 치료계획을 함으로써 암을 여러 단면으로 쪼개서 인식하여 치료계획을 한다. 따라서 치료계획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으나 다양한 방향에서 암을 보면서 치료할 수 있어 정확도가 높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3차원 치료 중에서 가장 앞선 치료법을 세기조절 방사선치료(IMRT;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라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4차원 치료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4차원치료를 영상유도 방사선치료(IGRT:image guided radiation therapy)라고 한다.

4차원치료란, 호흡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양까지 제어하면서 매일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 자세를 보정해 주는 것이 주된 치료의 과정에 포함된다. 이런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치료와 별개로 방사선 수술도 점점 더 많이 시행되고 있다. 방사선 수술은 방사선을 여러 방향에서 한 곳으로 집중시켜 암덩어리를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마치 수술로 제거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최신 방사선치료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방사선에 의한 정상 조직의 부작용을 줄이고, 종양을 제어하는 능력을 높이고자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다.

	장 점	단 점	장 비
2차원치료	치료가 빠르다	부정확	래프드 아크
3차원치료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정확 부작용감소↓	업무량증가	래피드 아크, 토모테라피, 양성자 치료기
4차원치료 (영상 유도 방사선치료)	정밀 부작용감소↓↓	업무량증가, 호흡이 규칙적일 때 가능	래피드 아크
방사선수술	초정밀 부작용감소↓↓↓	크기가 작은 경우만 해당	사이버나이프(4차원), 감마나이프(3차원)

사이버 나이프 방사선수술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는 감마나이프와 사이버나이프가 있다. 이 중 감마나이프는 뇌에 있는 종양에 대해서만 수술이 가능하나 사이버나이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감마나이프나 일반 방사선치료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뇌와 함께 전신에 방사선수술을 할 수 있고 둘째,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종양을 쫓아갈 수 있는 기능이 있어 4차원 치료도 같이 시행할 수 있다. 셋째, 치료기간이 5일 이내로 짧고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넷째는 한번에 고선량의 방사선을 투여하기 때문에 종양을 국소적으로 제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다만 이런 방사선 수술은 크기가 5cm이내의 작은 종양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고 1회 치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과 일부에서는 금침을 몸속에 삽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암은 뇌암, 두경부암, 폐암, 간암, 췌장암, 전립선암과 뼈 전이 등 각종 전이암, 재발암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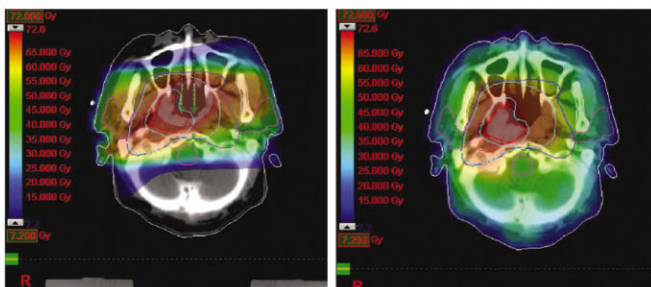
	일반 방사선치료	방사선수술
치료기간	10~60일	1~5일
호흡에 따른 종양추적	불가능	가능
4차원치료	4차원기능 탑재시 가능	가능
방사선 조사 방향	1~6개	100~200개
1회 치료시간	5~20분	60~120분
금침삽입	일부에서 필요	일부에서 필요
크기제한	40cm까지 가능	5cm까지 가능

래피드 아크(Rapid Arc)를 이용한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래피드 아크는 2차원에서 4차원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에 속한다. 위에 언급한 3차원 치료 중 가장 앞선 치료법인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를 물론 시행할 수 있고, 360도 회전하면서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는 정상조직을 가장 많이 보호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일례를 들어서 두경부암을 치료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정상조직이 침샘(이하선)이다. 침샘은 한번 방사선이 들어가면 영구적으로 침의 분비가 장애를 받아서 평생 침없이 살아야 한다. 침이 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언뜻 생각하면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의외로 심각한 문제가 많다. 이런 침샘을 방사선범위 안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는(그림1) 방사선 범위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각각의 조각에 다른 양의 방사선을 투여하는 방법으로(그림2) 치료시간이 짧고 보다 많은 정상조직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를 시행함으로

▼ (그림1) 비인두암에서 3차원치료(좌측)와 세기조절 방사선치료(우측)의 비교. 우측의 그림은 방사선량이 종양에 집중되어 있고, 양옆 피부쪽에 위치한 침샘에 방사선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 (그림2) 래피드 아크의 치료 모습



써 총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방사선치료가 40회를 시행한다면 세기조절치료는 25회 정도로 끝낼 수 있다. 다른 장점으로 방사선치료 범위 안에서 일정 부분은 고선량을 다른 부분을 저선량으로 각각 나누어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는 두경부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뇌암, 골반강에서 발생함 암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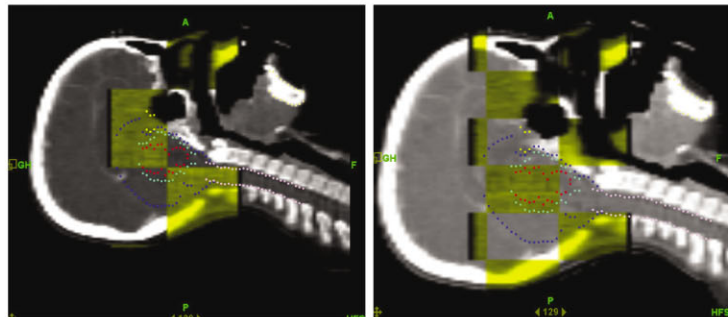
래피드아크(Rapid Arc)를 이용한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IGRT)

래피드 아크를 이용한 4차원 치료인 영상유도 방사선치료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매일 환자의 치료자세를 정밀하게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다. 방사선치료는 일반적으로 수 십회 시행하기 되는데 이 때 매일 환자가 정확한 자세를 취해야 치료 또한 정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환자가 테이블에 누우면 사진을 찍고 치료자세가 처음에 계획한 사진과 약간이라도 맞지 않으면 자동으로 테이블을 움직여 보정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므로 정밀도를 높였다(그림3). 둘째는 폐갈이 움직이는 장기에 종양이 있을 경우 이를 극복하면서 치료범위를 작게 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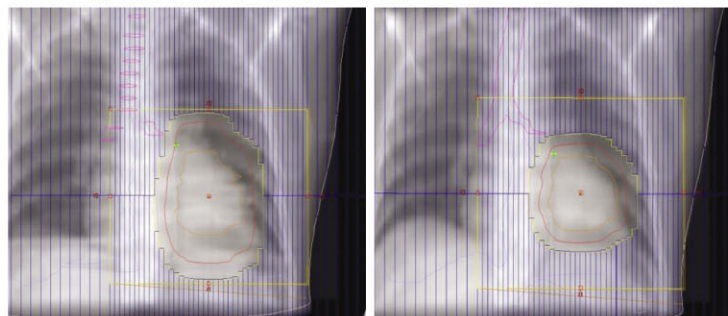
즉, 종양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는 이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의 범위를 넓게 해야 하는데, 이를 좁히기 위하여 작은 방사선치료 범위를 정해 놓고 이 범위 안에 종양이 들어오면 치료를 하고 종양이 벗어나면 치료를 멈추는 방법으로 정상조직을 보호하는 것이다(그림4). 이렇게 영상유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면 역시 정확도와 정상조직의 보호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총 방사선량을 높여 치료효과도 높일 수 있다.

CyberKnife & RapidArc

▼(그림3) 치료 자세 보정 전(좌측)과 자세 보정 후(우측)의 비교. (노란 색이 실제 환자에서 찍은 영상) 척추뼈 가장상단의 후면부두개골을 보면 보정전에 튀어나와 있으나 보정 후 정확히 계획된 CT영상상과 치료자세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림4) 호흡에 의한 움직임을 고려하여 치료범위를 넓게 하여 치료하는 방법(좌측)과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 위하여 범위를 작게한 경우(우측)의 비교



맞춤형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척추질환 연령별 척추질환도 다르고 연령별 치료도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들 대부분 허리나 목이 아프다고 하면 '담이 들었다' 아니면 '디스크' 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며 실제로 의원이나 병원에서도 근육을 풀어주는 물리치료나 진통 - 소염력을 가진 약물 투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연령별로 흔히 발생하는 척추질환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으며 또, 개인별로도 같은 질병이라도 생활습관, 통증을 받아들이는 성격, 직업 등으로 인해 서로 다르므로 그야말로 환자별 '맞춤형'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령별 척추질환

10대 - 환자는 만성적인 요통이나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서 x-ray 촬영을 통해 측만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측만증은 조기에 발견을 하면 보조기 착용으로 어느 정도 휘어진 척추를 바르게 교정할 수 있지만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 측만이 청소년기에 왕성한 성장과 더불어 척추 만곡이 진행되어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한 정도로 내원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수술적인 교정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많지 않지만 수술적인 교정 시 광범위한 척추 기기고정이 불가피 하므로 10대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허리나 등이 아프다고 하면 단순히 근육이 뭉쳤겠지 아니면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지 마시고 한번쯤은 척추전문의와 의료적인 상담과 x-ray 촬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20대 - 특히 남자들이 군대 전후에 요통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대 전에는 평소 자주 아픈 허리가 군훈련을 통해 심해지는 것이 두렵거나 아니며 멀쩡하던 허리나 목이 군 입대하여 군 훈련을 통해 통증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단순한 요통만 호소하는 경우는 약물처방으로 충분하지만 다리가 특히 무릎아래로까지 저리기 시작하면 '디스크' 질환에 대한 적색 경보로 생각해야 한다. 군 입대 전이라면 반드시 MRI 촬영을 통해 내 허리나 목이 군 훈련을 견디어 낼 수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며 군 입대 후 통증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군 부대 군의관과 상태를 상의해보고 필요하다면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윤승환 교수 | 신경외과

- 전문분야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 진료시간 : 화(오후), 금(종일)
- 문의 : 신경외과 ☎032-890-2370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현역 군인이 통증을 호소하면 군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치료를 의뢰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일반병원에서 처치나 진단을 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연령대에서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탈출증이 많이 발생하며 꼭 피부절개로 빠져나온 디스크(수핵) 제거술 보다는 바늘 삽입을 통한 수핵제거술이나 아니면 내시경을 통한 수핵제거술이 정상적인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파괴를 덜 하면서 병소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30대 - 특히 여성분들이 목이나 허리가 자주 아파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운동부족으로 인한 근막동통성 증후군으로 진단된다. 항상 목이나 허리가 빠근하며 아프고,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높은 것이 편하다. 주변 의원에서 x-ray 검사를 하면 목이나 허리가 일자라는 소리를 듣고 물리치료를 며칠 받아보지만 실통치 않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한다.

걸어로는 이상 없으나 아무도 자신의 괴로움을 알아주지 않아 섭섭하기도 하며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20대를 지나고 출산 후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서 운동은 부족하게 되어 근육이 그야말로 멎쳐 오랜 경과를 거쳐 부분적인 만성섬유조직으로 변해버려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계속 물리치료나 약, 침 치료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스트레칭과 적절한 운동이 필수이며 하루 최소 30분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해주어야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처음 운동을 시작하면 통증이 더 심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기적으로 병원 방문 시 얼마나 적절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였는지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40~50대 -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 질환과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해져 있으며 대부분 디스크의 탄력은 점점 저하되고 체중은 증가되어 척추에 부담이 증가되면 척추관절에 일종의 염증반응이 발생하고 척추증이 증가되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허리나 목에 통증과 팔이 저리거나, 보행 시 다리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며 초기는 보존적인 처치로 대부분 호전된다.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는 척추관절블럭이나 신경블럭과 같은 주사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60대 - 여성과 남성 질환이 뚜렷이 구분되는데 여성에서는 폐경기가 발생하여 호르몬에 변화로 골다공증이 발생하여 척추뼈가 아주 작은 외상으로도 쉽게 부러진다. 부러진 뼈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는 골절로 인한 척추가 구부러지며 결국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보행 시 똑바로 걸지 못하고 아이들 유모차나 지팡이로 잡고 간신히 걸을 수 있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데 일단 폐경기가 되면 골밀도 측정을 통해 자신이 골다공증이 있는지 알아보고 골다공증이 진단되면 골다공증 치료제를 정기적으로 투여하며, 외상으로 인한 압박골절은 간단한 국소마취를 통해 골시멘트를 압박골절에 주입해서 더 이상 뼈가 압박되지 않고 통증을 신속히 치료해준다. 이미 허리가 많이 구부러져 정면을 보며 걷기가 힘든 경우는 척추 전문의중에서도 척추기형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진찰을 통해 구부러진 부분을 외과적인 치료를 통해 교정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교정 수술이 늦어져서 허리가 너무 구부러진 경우는 수술이 매우 난해해지고 위험부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60대 이후 - 남성에서는 여성에 비해 골다공증 보다는 척추뼈에 이상 돌기가 생겨서 신경을 누르는 척추관 협착이 발생하여 허리에 발생하는 경우는 보행을 시작하여 몇 미터를 걸으면 종아리가 아파서 가다 쉬다를 반복해야 되고 좋아하는 등산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초기에는 약물과 관절주사치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진행되어 보행장애가 시작되면 감압술이라는 신경이 좁아진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미세침술 수술이라고 하여 조금만 피부절개를 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또 하나는 여성에게도 해당되지만 암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유 없이 압박골절이나 체중감소와 허리, 목, 등이 아프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척추에 발생 할 수 있는 암성 질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요통과 운동

허리에 좋은 운동, 피해야 할 운동은 무엇일까?

글 · 김치중 운동처방사 | 비만센터

인구의 80% 이상은 일생동안 한 번 이상의 요통을 경험한다. 지금도 국민 절반 이상이 요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수는 증가한다. 이러한 요통을 호소하는 분들 중 실제로 허리질환(디스크, 협착증, 분리증, 변위증 등)을 가진 분들은 10%도 되지 않는다. 대다수는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나오는 단순한 허리 통증이다. 요통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힘든 육체적인 활동으로 인해 허리근육을 과도하게 써서 급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된 원인은 평소 잘못된 자세, 과체중, 운동 부족에 의해 허리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약화되거나 경직되어서 발생하게 된다.

서양의 입식생활에 비해 한국인은 좌식생활로 인해 잘못된 자세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장시간 습관적으로 잘못된 자세로 인해 허리 통증을 가져온다. 또한 체중이 증가할수록 직접적으로 허리가 받는 부담감이 증가하게 된다. 비만인 사람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요통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나 복부 비만의 경우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영향으로 발생률을 더 높게 된다.

○○종합병원 건강검진 스포츠정밀검사소에서 허리 근력만을 평가하는 메덱스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75% 이상이 정상 근력 수준에도 못 미쳤다. 이러한 근력 약화와 더불어 허리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 중 대부분은 평소에 만성 요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요통을 예방하거

나 줄이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며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요통체조를 통해 근력과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허리에 좋은 유산소 운동은 걷기, 속보, 수영, 등산, 자전거타기 등이다. 자전거는 안장을 통해서 허리를 강하게 지지해야 하므로 허리근육에 좋으며 수영도 허리 강화에 도움을 주나 접영과 같은 동작은 허리에 부담을 주므로 삼가야 한다. 피해야 할 운동으로는 하중이 나가는 물체를 들어 올린다는가 스피드를 요구하는 운동이다. 또한 골프 연습이나 볼링 같은 운동은 허리를 과도하게 한 방향으로만 비틀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며 충분한 스트레칭 후 실시해야 한다.

요통 체조는 요통 치료와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다. 허리 주변의 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스트레칭 체조(그림1)와 척추를 바로잡는 척추 기립근과 복부 근육의 근력 운동(그림2)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력운동 시 복근 운동도 꼭 병행해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요통 체조는 매일 지속적으로 20분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정확한 동작으로 반복을 통해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파트너와 함께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Backache & Stretches

요통 체조 시 주의사항

-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 (통증 전)내에서 실시한다.
- 통증을 느끼는 동작은 하지 않는다.
- 스트레칭 체조(그림1)는 긴장을 풀고 천천히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좌·우 각각 실시한다.
- 스트레칭 체조(그림1)는 정확한 자세로 10~15초간 머물러야 하며 각 동작은 좌·우 각각 2~3회 반복한다.
- 근력운동(그림2)은 정확한 자세로 10초간 실시하며 각각의 동작은 5회 반복한다.

허리 질환별 주의사항

- 디스크(추간판 탈출증)가 있는 분은 허리를 굽히는 동작(1, 2, 3, 9)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실시
- 협착증과 전방분리증이 있는 분은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7, 10, 13, 15)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실시
- 척추 전만증이 있는 분은 복근 운동과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1, 2, 3, 8, 9, 12)이 효과적이다.
- 척추 후만증이 있는 분은 허리근력 운동과 허리를 젖히는 스트레칭(7, 10, 11, 13, 15)이 효과적이다.
- 척추 측만증은 등과 어깨 운동 근력운동이 병행하는 게 효과적이다.

※ 문의 : 비만센터 | 032-890-3360

▼그림 1 : 스트레칭 체조(① ~ ⑨)



▼그림 2 : 근력 운동(⑩ ~ ⑮)





감동을 주는 간호사를 꿈꾸며 오늘도 달린다

정신 없이 뛰어다니다가 무심코 벽을 쳐다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는 시계가 눈에 들어온다.
이브닝 출근한 지가 방금 같은데 이제 입사한 지 한 달이 된 신규 간호사인 나에게 병동에서의 시간은 늘 쏠살같이 지나간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선 집. 혼자 산 지가 대학 때부터이니 자취생활은 벌써 6년째지만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느껴지는 적막감은 여전히 적응이 안 된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집에는 항상 엄마가 있었다. 한때 서울에서 패션관련 직장을 다니셨던 엄마는 우리들을 엄마가 키우길 원하셨던 아빠의 요구와 지방에서 결혼생활을 해야 했던 사정 때문에 결혼과 함께 전업주부가 되었다.

그렇게 20년 넘게 엄마는 늘 자신보다 가족이 먼저였고 대부분의 남은 시간도 가족들을 위한 시간으로 쓰셨다. 그런 엄마의 모습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엄마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엄마가 집에 없었을 때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된다. 물론 길게 집을 비우신 건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서던 느낌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이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집에 오자마자 나는 물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아 우리 진우 오늘 일찍 왔네”

엄마는 나와 언니 동생이 학교 간 이후 아침 시간을 이용해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복지회관에서 주관하는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해 왔던 것이다. 엄마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집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나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엄마의 봉사활동을 반대했고 어쩌다 같은 일로 나보다 늦게 엄마가 집에 오면 괜한 심통을 부리기도 했었다. 나긋나긋하고 친절한 언니와는 달리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언제나 내가 먼저였던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봉사 시간을 채워야 했던 나는 보다 손쉽게 시간을 채우기 위해 엄마가 하는 도시락 배달 봉사를 따라간다고 나섰었다. 봉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권유만 하시고 강요는 하지 않았던 엄마는 이유야 어찌됐든 내가 도시락 배달을 따라 나선다고 하자 내심 반가워 하는 눈치였다. 순전히 학교에서 채워야 하는 봉사 시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막상 복지관에 도착해 엄마와



글 · 전진우 간호사
| 병동간호2팀(8병동)

함께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하나하나 싸다 보니 마음이 훈훈해졌다. 그렇게 다 만들어진 도시락을 가지고 골목도 좁아 사람 한 명도 지나가기 버거운 골목을 따라 찾아가 그 곳에는 하루 종일 그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계셨다. 도시락 통 안에 들어있는 자신들의 끼니보다 그 도시락을 들고 온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독거노인들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엄마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그간의 안부를 물었고 어디 아픈지는 없는지, 일주일간 집안에 별 문제는 생기지는 않았는지 살폈다. 늘 집에서만 봐오던 엄마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있음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자 그 동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불평만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됐다. 그날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수거해 온 도시락 통을 씻으며 엄마가 말했다.

“우리 진우는 대학 전공 뭐할지 생각해봤어?”

“아니, 아직 근데 난 문과 안 맞아, 이과 갈 거야”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간호학과를 가면 어떨까?”

“간호학과? 간호사 되라고?”

“응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진우가 간호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엄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미미하게나마 봉사 수준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 만약 간호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돼서 일한다면 아픈 사람들을 직접 현장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몸이 아픈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에 비하면 약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치료해준다는 일 자체가 정말 멋진 것 같다.”

물론 내가 엄마의 그때 그 한마디로 간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보다 보람되고 내가 쓰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이 길을 선택했고 모교 병원에서 일할 수 있었다. 누군가가 내 손길로 아픔의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고귀하고 영명한 일일 것인가.

사실 나는 이제 막 현장에 투입된 새내기로서 여러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에 대한 대응능력도 부족하고 그만큼 일일이 부딪히며 배워나가야 하는 단계이므로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많다. 그럴 때면 나는 ‘핀 수역식’ 때의 나이팅게일 선서를 떠올린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며 처음 가졌던 간호사로서의 정신. 그리고 지금껏 소외되고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다시금 투철해진다.

간호는 단순히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봉사정신만을 가지고서는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니만큼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병원 시스템에도 잘 적응해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내 위치에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 환자들이 만족하는 최상의 의료서비스 역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수준 높은 의술과 성공적인 치료다. 그러나 몸을 다친 환자가 마음까지 치료 받은 것 같은 감동은 내 노력 여하에서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감동을 주는 간호사로 오늘도 열심히 나는 8병동을 뛰어다니려나.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즐겁다

2007년 9월 어느 날 야간근무를 위해 MA(내과계집중치료실)에 들어섰을 때 몇몇이 모여 조금 상기된 얼굴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 하고 있었다.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이브닝 근무를 했던 한 간호사가 이야기 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기가 막혀서 혼났어요. 이번에 CCU(심혈관계집중치료실)에서 온 김OO 할머니 보호자요..” 얼마나 속상했던지 거의 울먹이기 직전인 동료 간호사는 그날 있었던 일을 숨도 쉬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이랬다. 30년을 당뇨, 관절염 등으로 고생을 하셨던 김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각한 호흡곤란으로 기도삽관을 하고 무의식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보호자들은 치료의 과정을 불신하고 모든 의료진을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나이트 근무를 위해 들어 왔을 때 이브닝 근무 간호사들은 그날 면회 시간에 있었던 비화를 이야기 하며 김 할머니의 보호자로 인해 출근하기 싫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 했고 차라리 면회 시간이 없는 나이트 근무를 하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다.

맙소사.. 나는 그 보호자를 만날일도 없는데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브닝 근무를 들어간 첫날. 난 정말 비장한 각오로 면회 시간을 기다렸다. 우선 동료 간호사들이 이야기 했던 보호자의 주요 항의

사항을 점검했다.

“우리 엄마의 입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침을 흘렸는데 쳐다보지도 않나요?”

정말 정성껏 구강 간호를 하고 구강 간호를 한 티를 내기 위해 구강 청정제의 향기가 나는지 확인하고 입술이 반짝이도록 유연제도 발랐다.

“베개 높이가 이게 뭐예요? 댁의 목이 이렇게 꺾이면 잠이 오겠어요?” 몇 번을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며 최적의 높이로 베개를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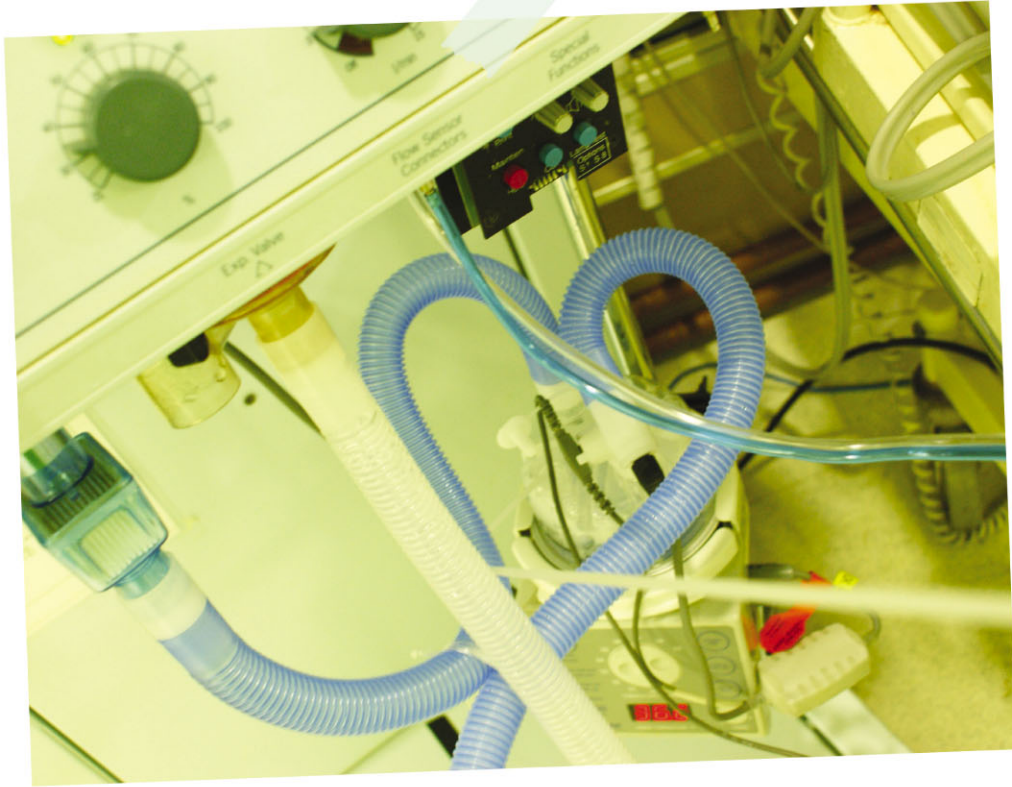
“대변을 봤잖아요? 세상에 환자를 이렇게 내 팽개쳐 놓고, 정말 원장실로 가든가 보건복지부에 항의 하던가 해야지.. 정말 자세가 글러먹었어..” 사실 김 할머니는 대변을 보지 않을 때가 없었다. 치위



글 · 김성은 간호사
| 특수간호팀(내과계집중치료실A)

도, 치워도 또 치워도 대변이 계속 나온다. 정말 억울했다..
면회시간 정확히 1분전에 커튼을 치고, 물티슈를 꺼내 놓고 대변을 치울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드디어 보호자가 들어 왔다. “안녕하세요, 지금 김OO님께서 대변을 보셔서 치워 드리고 있었어요. 20분 전에 봤는데 또 보시네요, 옆에서 좀 잡아 주시겠습니까?” 보호자들은 엉겁결에 옆에서 함께 대변을 치우게 됐다.
나는 짐짓 심각하게 “그렇게 잡으시면 어머니께서 힘드셔요, 두 손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똑바로 눕힌 게 보기는 좋겠지만 안 그래도 피부도 안 좋고 설사까지 계속 하시는데 욕창까지 생깁니다. 생각 해 보세요, 어머니는 의식도 없어서 말씀도 못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입이 닳도록 이야기 했고 결국 보호자들은 내 이야기만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날 처음으로 보호자는 감사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MA(내과계집중치료실)를 나갔고, 이브닝 근무를 하는 3일 동안 면회 시간은 계속 이런 모습이 반복됐고 이날 이후 김 할머니나 보호자들이 다른 환자와는 다른 특별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전투태세로 임한 30분간 그분들이 우리에게 섭섭하고 화가 났던 이유를 듣고, 면회시간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서울 상계동에서 오후 6시 퇴근해서 도로를 질주 해 오는 큰 따님)오는지,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교대로 어머니를 단 몇 분밖에 못 본다든가 얼마나 속상하고 애뜻한지.. 비록 첫 시작은 오기에서 시작 됐던 행동이었지만 그분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야! 이런 거구나.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즐거운 느낌! 그러던 어느 날, 김 할머니의 시선이 느껴졌다. '어? 이분은 의식이 없는데...' “김OO님 맞으세요?” 김 할머니는 열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맙소사...’ 드디어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다. 함께 있던 보호자는 환호성을 질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 합니다..” 그들은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난 순간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 진심에서 한 행동이 아닌 오기와 계산에서 나왔던 내 행동이 너무나도 참피한 생각과 함께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요즘 나는 마라톤에 심취해 있다. 시작은 작년 10월 축구장 한 바퀴 400m,
아직도 기억이 난다. ‘와... 내가 겨우 400m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갖는구나. 이거 화하는데?’ 오기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 한번 해보자구.’ 3교대의 특성상 남들처럼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규칙적으로 뛸 수 없었다. 데이 근무 끝나고 오후 6시, 이브닝 근무가 끝나면 밤 11시, 나이트 근무일 땀 조금 자고 일어나 오후 4시부터 뛰기 시작했다. 처음엔 너무 힘들고 숨이 차서 ‘내가 정말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수 십 번 했다. 처음엔 옆구리가 당기고, 그다음엔 발목이 아프고 또 뛰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고 뛰다보면 너무 힘들어서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정말 신기한건 그 단계를 지나자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작년 11월 난 미사리 마라톤 대회에서 10km를 완주 할 수 있었다. 10km 완주 그 순간 난 익히 맛 볼 수 없었던 희열을 느꼈다. 그 기본은...
10km라는 거리가 풀코스를 완주하고, 100km, 300km 울트라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울 수 있지만 내게는 꿈의 거리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3월 28일 인천 국제 마라톤 대회 20km를 준비 하고 있다.
집중치료실에서의 보람과 마라톤에서 느낀 희열의 순간은 비슷한 면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집중치료실이란 공간은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있어 좌절과 고통의 이름으로 다가 올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누군가에게 그들의 고통이 투사 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 할 수밖에 없다. 그 누군가는 병원에 근무하는 바로 우리 의료진인 것이다. 한마디 항변도 할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 물론 힘들고 짜증나고 억울하기도 하다. 어쩔 때는 정말 ‘내가 여기서 나가면 뭘 못하겠어?’ 라는 생각에 병원이란 공간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수 십 번 하게 된다. 하지만 생과 사가 오가는 이곳에서의 보람을 또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
마라톤에서의 희열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과 한계를 극복 했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곳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순간을 지나쳐 왔을 때 내 인생 궁극적인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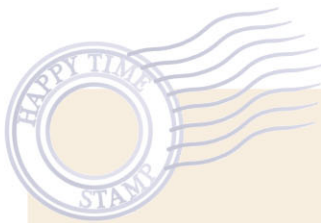
“사랑”

글/사진 · 이해경 수간호사 | 특수간호팀(내과계중환자실B)

일회용 circuit이 하트모양을 하고 있네요
간호사들이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circuit에 담겨있는것 같아
슬멧 얼굴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 바쁘게 지나던 일상속에 늘 익숙했던 주변의 사물들, 오늘은 색다르게 다가오는 한 장면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① 순간포착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주변 일상의 흔하지만 의미있고 독특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내실 때는 간단한 설명과,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인하대병원 원보편집실 : inhapr@inha.com 문의 032)890-2603



Dear...



9th, Mar, 2010
A grateful letter

감사의 편지

2009년 1월 초에 저희 남편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하대병원에서 암 진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인하대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해 내지 못했다면 저의 남편은 아마도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저의 남편은 인천지방변호사회랑 연계하여 2009년 1월 인하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 하였고, 제 남편의 폐에 그림자가 보인다는 이상소견이 있다며 재검을 권유하였습니다.

즉시 제 남편이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타 병원에서 정밀 촬영을 한 결과 심장 바로 뒤에 위치한 폐에 3cm가량의 암이 발견되었으며 정밀 진단을 한 방사선과 의사인 친구의 말이 “참 발견하기 어려운 곳인데 처음 발견하신 의사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자칫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곳인데 이걸 발견하시다니 정말 꼼꼼하게 보았다”며 감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이 담배를 피고 있었지만 심장 바로 뒤에 위치한 관계로 급하게 아는 의사를 수배하여 진단 1주일 만에 가슴을 열어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을 담당한 분은 남편의 선배님으로, 그분의 말씀이 “며칠만 늦었더라도, 아마 손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암세포가 심장의 대동맥을 타려고 막 준비 하던 때라고 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인하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조기의 정확한 진단으로 인하여 남편은 무사히 수술을 마쳤으며, 수술을 담당한 의사선생님들의 소견을 듣고 너무도 찰나의 순간, 그 아찔한 기분에 가슴을 쓸어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너무도 급박한 마음에 아는 지인을 찾아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분명 인하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더라도 최고의 의료진이 최고의 의술을 베풀어 주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지 막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서야 감사의 글을 올리는 것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지만, 인하대병원에서 꼼꼼하게 남편의 진단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저의 남편과 저의 가족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큰 시련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하대병원에서는 단지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와 동반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살린 것이며,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의료업의 임무를 더욱 성실히 고귀하게 이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3월 3일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From...

“Hello!! My name is Jong Gyoung.”

오늘도 종경이와 간단한 영어회화를 주고받고 있다.

종경이의 꿈은 동시통역사가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테너 성악가의 꿈도 키우고 있지만 흥미를 갖고 힘쓰는 것은 역시 통역사이다. 그런 꿈 많은 종경이에게 벽이 생겼다. 7세에 발병되었던 뇌종양이 뇌간에 새롭게 생겨 연하운동, 걸기 등이 어려워진 것이다. 종양부위가 너무 위험한 곳이라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현재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종경이는 7세 때 뇌종양이 발병되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후유증으로 양쪽 시력을 모두 잃게 되었다. 인천광명원(시각장애인거주 시설)에는 8세(98년도)때부터 입소하여 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 인천해광학교(시각장애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며 올해 고2가 되었다.

종경이는 반듯한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자신보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학생으로 학교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다.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던 종경이가 2010년 2월 4일 평소보다 보행에 불편함을 느껴 가벼운 마음으로 인하대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너무도 엄청난 사실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뇌종양 재발....

그것도 치료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뇌간, 어찌하여야 하나?

그래, 벽이 있다면, 벽을 넘도록 하자. 종경이에게 희망의 끈으로 무장시켜 암벽을 타게 하자! 우리는 결심했다.

밝고 긍정적인 종경이지만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이 부정하며 서러워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앙의 힘과 주변 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 속에 이제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된 상태이다.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종경이는 치료와 회복이라는 꿈을 갖고 다시금 일어서려고 의지를 불태우며 혼신의 힘으로 견뎌 내고 있다.

인하대병원 의료진과 김기화 사회복지사님 그리고 광명원 가족들,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종경이는 불가능할 것 같은 벽을 다시금 넘을 것이라 우리는 믿는다.

불가능할 것 같은 벽, 희망의 끈으로
오늘도 암벽을 넘는 종경이

글 · 편인자 선생님 | 인천 광명원

● 의료비 지원 및 후원 관련 문의 : 인하대병원 진료지원팀 김기화 의료사회복지사 (☎ 032-890-2870)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백일해와 황열 1회 접종으로 예방 효과 10년 유지

Q : 올해는 백일해가 유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성인이 맞을 수 있는 백일해 백신이 있나요?

A : 2009년 신종 플루의 대유행 이후 신생아 또는 유아기에만 맞았다고 생각했던 백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국내에는 성인용 파상풍-디프테리아 예방백신(Td 백신)이 허가 중이었으나, 2009년 11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대상의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혼합 백신(Adacel®)이 허가되어 성인도 백일해 예방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백일해 예방접종을 마친 성인의 경우 매 10년마다 추가접종을 하면 됩니다. 백일해는 발작,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 14일 이상의 기침 양상을 나타내며, 미국 질병관리 본부 자료에 의하면 백일해의 주요 전염 경로는 가족 구성원 안에서 70% 이상 차지한다고 하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해외 여행시 황열 백신 꼭 맞아야 하나요?

A : 황열은 모기에 의해 옮겨지는 아르보바이러스(arbovirus)가 주요 원인으로, 보통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여행하려는 해외 여행자들이 맞아야 하는 백신 중 한가지입니다. 보통 아르보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간기능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간염 증상이 황달로 나타나면서 눈 또는 피부가 누렇게 착색되므로 황열(Yellow fever)로 불리고 있습니다.

모기에 물린 2-3일 후에 근육통,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발열, 근육통에 대한 증상 완화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유행 지역으로의 여행을 계획한다면 예방이 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황열 백신은 인천공항, 인천, 부산, 목포, 여수, 울산 검역소에서만 맞을 수 있으며, 최소한 여행 출발 10일 전에는 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9개월 이하 유아, 임산부, 수유부는 접종이 추천되지 않으며, 보통 1회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10년 유지 됩니다.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2010년 난임(불임)부부 정부지원 사업 안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
2010년부터는 시험관시술 뿐만 아니라 인공수정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인하대병원은 정부지원 불임부부 시험관 및 인공수정 시술 지정기관입니다.

Supported by Government

■ 자원내용

1. 시험관(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2. 인공수정시술
3. 맞벌이 난임(불임)부부 지원대상자 확대
 - 1회 지원한도액(최대 지원횟수 3회): 시험관(체외수정)시술 150만원, 인공수정시술 50만원

■ 지원신청자격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시험관(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시험관(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인공수정시술 : 의사진단서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3.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지원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0년 연중 접수
2.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 보건소
3. 제출서류(보건소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보건복지 홈페이지 www.mw.g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검사항목 및 의뢰방법은 인하대병원 홈페이지 진료의센터(WWW.inha.com/ir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인하대병원 산부인과 외래 ☎032-890-2270,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

섬기는 마음을 가진 최고가 되고 싶어

송도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 의원 _ 강석봉, 고희창 원장

2009년 3월 지금의 이 자리에 고 원장이 먼저 개원을 했고 강 원장과 의기투합한 것은 지난 해 11월의 일이니까 아직 개원으로는 새내기인 셈이다.

비슷할 수 있는 분야의 두 친구가 힘을 합친 것은 대충진료를 하지 않으려는 진료마인드가 통했기 때문이다. 사실 일반인들은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은데 쉽게 고 원장은 내과와 외과적 측면으로 설명한다.

정형외과 문제인 듯 싶어 내원을 하였지만 신경치료가 훨씬 효과 좋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물리치료가 더 맞는 경우가 있음을 예로 설명한다. 결국 두 원장의 공동개원은 환자의 빠른 쾌유와 더 나가서 건강을 십분 고려한 것이다.



생각이 통하는 친구이자 송도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두 원장을 따르며 내조하는 10명의 직원들은 친절함 미소로 늘 환자를 맞는다. 또 X-Ray보다 진단이 바로 가능하고 CT나 MRA보다 검사방법이 간편한 근골격계 초음파를 이용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다. 또한 관절 내에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 초음파를 통하여 정확한 위치에 시술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두 원장은 최고가 되고 싶다. '최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진실로 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라고 생각한다. 의학적인 치료가 최고인 것은 물론이고 마음으로 걱정해주고 환자와 함께 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한다. 그래서 또 의사로서 최고보다 섬기는 마음으로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이다.

인하대병원 동문인 두 원장은 남다른 애착을 전한다.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협력병원이 동문병원이라 더 좋다. 협력병원으로서 의뢰하는 환자들에게 건강검진 등 여러 가지 할인혜택이 있었음 하는 바람도 슬몃 건넨다. 언제고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란.....

병원을 개원하던 날, 불안한 고객을 만들지 말아야하겠다는 생각을 했단다. 우선 문턱이 높아서도 안 되고 의사 자신이 자신감을 갖고 최선의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두 원장의 환자를 생각한 환상적인 만남, 이상적인 개원이다. 비슷비슷한 개원의가 많지만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최고의 만족을 주는 그런 병원, 최선을 다하면 진심은 통한다는 기본에 충실한 건강한 '이웃병원'을 꿈꾸는 두 원장의 붉은 유난히 분주할 듯싶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032-859-8000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제 6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취임식 개최



2010년 3월 2일, 3층 대강당에서 ‘인하의료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본수 인하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대 이두익 의료원장님의 이임사와 이본수 인하대학교 총장님의 치사 그리고 제6대 박승림 의료원장의 취임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 6 대 박승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님은 취임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의료계 환경 속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효율과 생산성 향상, 변화와 혁신,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성장기반 확충과 브랜드 파워를 높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인천지역 최단기 내시경 시술 20만례 돌파 ●

2010년 2월 8일, 본원 소화기센터 내시경실에서 인천지역 최단기 내시경 시술 20만례 돌파 기념 행사가 열렸다. 1996년 개소한 소화기 센터는 06년도에 10만례를 돌파했으며 그 후 3년만에 20만례 시술을 돌파하는 쾌거를 올렸다. 박승림 병원장은 “20만례라는 수치적 의미도 물론 있지만 질적으로도 우수한 센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 더 노력하여 50만례, 100만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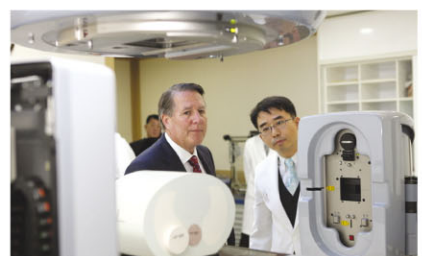
‘의료인 건강지킴이’ 로서 휴일 개원의 건강검진 실시 ●●

2010년 2월 21일(일), 부평연세내과 등 23개 개원의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인천 의료인을 위한 검진’을 시행했다. 인천권 진료의뢰 중심 대학병원으로서 협력 병 의원간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진료의뢰 활성화 및 비싼 스케줄과 많은 업무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을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개원의 및 가족을 대상으로 휴일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수면내시경, PET-CT, MRI 등 총 7종류의 맞춤형 검진을 실시한 이번 건강검진을 수진한 개원의는 “평일에 진료를 포기하고 검진을 받기 부담스럽고, 많은 대기시간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미루는 경향이 많았다.”라며 “하지만 인하대병원에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들이 출근해 검진을 진행해 주어 대단히 고맙고 감동적이다.”라고 말했다.



유타대학교 약대학장 본원 방문 ●●●

2010년 1월 20일, 유타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Chris M. Ireland 등 3명이 인하대병원을 방문했다. 인하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인천지역연합회, 유타-인하 DDS 및 신의료기술개발 공동연구소가 주최하는 <인천 의학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차 방한한 이들은 병원 현황 브리핑 및 약 1시간의 병원투어를 하며 18층 특실병동, 국제진료센터, 진단센터와 암치료장비인 사이버나이프 및 래피드아크를 보았다. 인천지역 특히 인하대병원의 높은 진료수준에 감탄하며 연구 개발 및 각종 사업에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병원 내원객 편의제공을 위한 무인 민원발급창구 개설 ●

1월 26일부터 인하대병원은 편리하고 신속한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 방문객 및 환자, 교직원 등의 민원발급 편익을 도모하고자 병원 1층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였다. 박승숙 중구청장이 개설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발급가능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35종이며, 운영시간은 08:00 ~ 22:00이며, 주말에도 발급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인하대병원, 안면도 수협 지정병원 협약 ●●

1월 27일, 인하대병원과 안면도수산업 협동조합은 공동발전을 위하여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적정진료를 행함으로 국민 보건발전에 기여하며, 안면도수협의 회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질병 진료, 건강검진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연계를 통한 공동의 발전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병원 발전기금 기부 감사 ●●●

제2기 건강CEO과정 용현운수(자) 이인철 대표께서 병원발전기금으로 1억 3백만원을 기부해 주셨다. 이인철 대표는 자녀들이 인하대 부중, 부고, 대학교를 졸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하대학교 초창기 때부터 학교와 더불어 사업을 함께 한 인연도 있으며, 인하대병원에서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을 돌봐준 은혜에 감사하여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병원 발전기금을 기부해 주신 용현운수(자) 이인철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애를 통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돌아온

〈인하대병원 아이티 긴급 의료지원단〉 ●●●●

2010년 2월 23일, 3층 강당에서 〈아이티 긴급 의료지원단 해단식〉을 실시했다. 2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13일간 시행된 이번 의료지원단은 총 1675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특히 인하대병원은 1진 의료지원단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3, 4기의 준비사항과 차후 진행될 의료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하여 크게 평가를 받았다.

해단식에서 박승림 병원장님은 “누구에게나 봉사와 사랑의 마음은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실천하기에는 크나큰 용기가 필요하다.”라며 “여러분들은 인하대병원 교직원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전파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인하대병원의 아이티 의료지원 활동은 EBS 극한직업 프로그램에 3월 3일(수)~4일(목) 양일간 총 60분에 걸쳐 소개되었다.



인천 논현동 새터민 대상 무료건강검진 실시 ●●●●●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인천새터민지원센터〉에서 50여 명의 새터민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0일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새터민이란 통일부에서 발표한 “한국거주 탈북자”의 순화된 표현이다. 이번 새터민 무료 건강검진은 인하대병원 의료진 7명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동구청지역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 봉사단으로 구성되어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총 4개의 진료과로 무료검진을 실시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소라 신기술개발단장 초청세미나 성료 ●

2월 17일(수), 17시 본원 대강당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기술개발단 박소라 단장의 초청세미나가 열렸다.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연구중심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로, 본원 임원진을 비롯한 각 부서장급이상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의료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임상연구를 통한 간호실무 발전, 2010년 간호부 학술대회 개최 ●●

2010년 2월 10일(수) 본원 3층 강당에서 <2010년 간호부 학술대회 '임상연구를 통한 간호실무 발전'>가 열렸다. 본원 임원진을 비롯한 내·외부 인사 2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간호모범사례 4편, 임상간호논문 6편, 학위논문 3편 구연 발표, 간호모범사례 4편, 임상간호논문 4편이 발표되는 등 매우 풍성한 연구 성과들을 자랑했으며 의미 있고 실용적인 연구들이 발표되어 더욱 의의가 있었다.



수상내역은 ▲대상-집중치료실 교육위원회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섬망 발생 관련 요인 분석' ▲최우수상-동15병동의 '체중 조절 프로그램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정신과 입원 환자의 체중, BMI, 삶의 만족도, PANSS에 미치는 효과' 이다.

협력의료기관 초청 서비스 교육 실시 ●●●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인하대병원에서 협력의료기관 초청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천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전달 체계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며 지역 의료기관 CS교육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이티 의료지원 사진전 개최 ●●●●

3월 2일부터 3월 21일 까지 약 3주간 본원 1층 로비에서 아이티 의료지원 사진전이 열린다. 이번 사진전은 지난 2월 9일부터 21일까지 약 13일간 설 연휴도 반납하고 본원 의료진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 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아이티 의료지원간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되었다.



총 40여 점으로 구성된 이번 사진전은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적십자사, 대한항공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아이티 지원피해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뒷이야기를 눈앞에서 보는 듯한 사진들로 이루어져 많은 내원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 5회 건강문화CEO과정 조찬회 개최 ●●●●●

3월 3일 오전 7시,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인하대병원 제 5회 건강문화CEO과정 조찬회가 열렸다. 이번 조찬회에는 3기로 입과 예정인 이길범 해양경찰청장 등 15명을 비롯한 본원 신입 임원진과 1, 2기 원우 등이 참석해 총 약 6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특강으로 소화기내과 권계숙 교수의 <소화기질환과 건강관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어 비빔 CEO들에게 건강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되었다.

인하대병원, 해외환자를 위한 영문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

2월 9일, 본원 지하 1층과 1층 로비에 설치된 영상정보시스템에 국문과 더불어 영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기존의 영상정보시스템이 서비스했던, 국문 진료예약정보, 원내 길 찾기, 의료진 안내 등을 영문으로 동일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외국인 환자들이 본원에 내원 시에 영상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병원 동아리, 고운소리 사랑나눔회, 지하 편의시설 신축개장 기념 음악회 개최 ●●

1월 27일, 본원 지하1층 편의시설 신축개장에 따라 인하대병원 음악동호회 <고운소리 사랑나눔회>가 '사랑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본원 환자 및 보호자 뿐만 아니라 많은 교직원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었으며 축하공연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인기 아이돌 그룹 씽(Xing)의 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노래 및 연주, 민요 등의 볼거리와 퀴즈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요술풍선과 페이스 페인팅도 제공되었다.



본원 지하1층, 진정회복실 개소 ●●●

3월 9일(화) 본원 지하 1층 <진정회복실>에서 박승림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본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Global safety Standards를 준수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JCI인증 추진을 선택한지 1년 만에, 마취진정 분야의 안전 장치인 진정회복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진정회복실의 기능은 검사 전·후 중등도 이상의 진정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정 전, 중, 후 일체의 과정에 이 분야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환자의 생리적 변화로 인한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안전하게 회복하도록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파랑새 소식

파랑새 총회

지난 2월 18일 100여분의 유방암 환우와 가족들이 모여 유방암 공개 강좌 및 파랑새 총회를 가졌다. 김수현 교수의 유방암 환자에게 맞는 운동법에 관한 공개 강좌는 평소에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방법이나 강도, 종류에 대해 몰라 궁금해하던 많은 환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0년 파랑새를 이끌어 봉사해주실 새로운 회장으로서 박연희님이 선출되어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홈페이지 www.inha.com > 여성암센터

▶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http://cafe.daum.net/inhabluebird) ▶ 문의 여성암센터 ☎ 890-2560



인사동정



기관장 임명

박석림 인하대학교의무부총장 겸 인하의료원장 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임원진 임명

소속	성명	발령사항
임원실	김석규	경영부원장
심장내과	박금수	제 1진료부원장
영상의학과	김원홍	제 2진료부원장 겸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장
정신과	김철웅	연구부원장
비뇨기과	성도환	기획조정실장 겸 국제진료센터소장

보직임명 및 확인

소속	성명	발령사항
외과	최선근	교육수련부장
신경외과	현동근	적정진료관리실장
마취통증의학과	송장호	적정진료관리실부실장
재활의학과	정한영	진료협력실장
내분비내과	남문석	임상시험센터장
신경외과	박현선	임상연구센터장 겸 신경외과과장
마취통증의학과	이홍식	인하의료사회봉사단장
감염내과	정문현	감염관리실장 겸 감염내과분과장
류마티스내과	박원	류마티스센터소장 겸 류마티스내과분과장
심장내과	이우형	간강중진센터소장
심장내과	권준	심장혈관센터소장 겸 심장내과분과장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사이버나이프센터소장 겸 방사선종양학과과장
외과	조영업	여성암센터 소장
호흡기내과	류정선	폐암센터소장 겸 호흡기내과분과장
내분비내과	김용성	당뇨&비만센터소장 겸 내분비내과분과장
혈액종양내과	김철수	암센터 소장 겸 혈액종양내과분과장
정형외과	김명구	골조직은행장
마취통증의학과	이춘수	집중치료실장
마취통증의학과	한정욱	수술실장 겸 마취통증의학과과장
신장내과	김문재	내과과장
소화기내과	이돈행	소화기내과분과장
신장내과	이승우	신장내과분과장
알레르기내과	김철우	알레르기내과분과장
외과	안승익	외과과장
흉부외과	백원기	흉부외과과장
정형외과	강준순	정형외과과장
성형외과	황건	성형외과과장
비뇨기과	윤상민	비뇨기과과장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소아청소년과과장
산부인과	이우영	산부인과과장
피부과	최광성	피부과과장
안과	최희승	안과과장
이비인후과	김영모	이비인후과과장
정신과	배재남	정신과과장

신경과	최성혜	신경과과장
재활의학과	김창환	재활의학과과장
가정의학과	최지호	가정의학과과장
치과	오남식	치과과장
산업의학과	임종한	산업의학과과장
응급의학과	한승백	응급의학과과장
영상의학과	임명관	영상의학과과장
핵의학과	현인영	핵의학과과장
진단검사의학과	남정현	진단검사의학과과장
병리과	김준미	병리과과장
기획조정팀	이태현	기획조정실부실장 겸 경영전략팀장
진료지원팀	최규철	기획예산팀장
전산정보팀	김용선	총무팀장 겸 노사협력팀장
자재팀	이한택	자재팀장 겸 자재팀 물류파트장
자재팀	홍사령	자재팀 구매파트장
원무보함팀	채혁기	원무팀장
원무보함팀	정홍재	원무팀 외래파트장
원무보함팀	김종철	원무팀 입퇴원파트장
영중메디컬센터	김종래	검진사업팀장 겸
개원추진본부		검진사업팀
사실관리팀	전현석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파트장
노사협력팀	정해만	사실팀장
CS팀	안중식	홍보팀장
대외협력홍보실	김명석	국제협력팀장
총무팀	황우경	진료지원팀장
		검진사업팀
		간강중진센터 파트장
산업의학과	이도익	검진사업팀 산업의학과 파트장
간호부	최윤정	보합심사팀장
적정진료관리실	김옥주	CS/RM팀장
병동간호1팀	서영민	간호부 교육행정 간호단위책임자 직무대리
인사교육팀	남궁석준	교육수련부 교육수련파트장
의료정보팀	이연숙	의료정보팀장 겸 전산지원파트장
의료정보팀	이선옥	의료정보팀 의무기록파트장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김인용	진료협력실 파트장
감시팀	고종욱	연구지원팀장

임 용

임상연구부 촉탁연구교수	이은규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방병욱	
혈액종양내과	임상강사 정해정	
감염내과	임상강사 김미정	
외과	임상강사 김장용	
정형외과	임상강사 김범수	
산업의학과	임상강사 김환철	
소화기내과	전임의 김지연, 김용욱, 정현정	
	홍기연, 임희환, 양병혁	
심장내과	전임의 박상돈	
내분비내과	전임의 이정진	
신장내과	전임의 주우철	
감염내과	전임의 김아름	
류마티스내과	전임의 윤지열	
외과	전임의 정인오	

정형외과	전임의 원만희	
산부인과	전임의 박정우, 정현재	
		성수미, 조성연
신경과	전임의 김소현	
피부과	전임의 송희진, 인승균	
이비인후과	전임의 김영효	
마취통증의학과	전임의 이미현	
영상의학과	전임의 이주원	
응급의학과	전임의 정현민	

수습직원 채용

약제팀	이정민, 공윤선
병동간호2팀	박한정, 전진우
병동간호1팀	김혜련, 조은아

전 근

소속	성명	발령사항
감사팀	이 욱	원무팀 입퇴원파트
간강중진센터	이영우	인사교육팀
교육수련부	김보라	홍보팀
교육수련부	김정규	총무팀
교육수련부	박종호	CS/RM팀
기획조정팀	박문석	경영전략팀
기획조정팀	박재현	진료지원팀
산업의학과	임현진	원무팀 입퇴원파트
외래간호팀	정유미	국제협력팀
연구지원팀	오형남	경영전략팀
원무보함팀	강문혁	기획예산팀
원무보함팀	김명숙	산업의학과
원무보함팀	신서연	교육수련부 교육수련파트
원무보함팀	심학수	자재팀 물류파트
원무보함팀	유영희	간호부
원무보함팀	조영순	보합심사팀
원무보함팀	홍순복	총무팀
인사교육팀	김시현	노사협력팀
인사교육팀	김영선	재무팀
인상시험센터	김미옥	연구지원팀
인상시험센터	김은경	연구지원팀
인상시험센터	천현석	연구지원팀
자재팀	김영진	홍보팀
자재팀	장사홍	보합심사팀
재무팀	배성숙	기획예산팀
재무팀	신재경	원무팀 입퇴원파트
재무팀	윤경순	기획예산팀
전산정보팀	황은이	경영전략팀
총무팀	박재민	원무팀 입퇴원파트
총무팀	우승민	원무팀 입퇴원파트
총무팀	이영아	인사교육팀
행정관리실	이강보	총무팀
외래간호팀	장언향	산부인과
특수간호팀	조영선	외래간호팀
병동간호1팀	김경순	특수간호팀
병동간호2팀	김복자	병동간호1팀
진단검사의학과	이필웅	자재팀
진단검사의학과	유길준	총무팀

이달의 친절직원

2월 병동간호2팀(서 12병동) 채해민 간호사



Global Inha

이번 호에는 사랑니가 불편한 외국인이 치과에 방문했을 때 대화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 Dentist: What is troubling you?
In't I patient: I have a severe toothache.
치과의사: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해외환자: 이가 몹시 아픡니다.
- Dentist: Lean back and open your mouth wide, please.
치과의사: 뒤로 기대서 입을 크게 벌려주십시오.
- Dentist: It has swollen a lot, It seems that your wisdom tooth has decayed, I think we have to pull it out, I will give you a local anesthesia before I begin to pull it out, It will hurt a little.
치과의사: 많이 부으셨네요. 사랑니가 썩은 것 같은데, 이를 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빼기 전에 마취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프실 것 입니다.
- Dentist: You may have to come three to four times more for treatment.
In't I patient: OK, are there any instructions for treatment?
치과의사: 3~4번 정도 더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환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의사항이 있나요?
- Dentist: Here you are,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carefully.
치과의사: 여기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보시고 잘 지켜주십시오.

★Global Inha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병원에서 쓰이는 영어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병원 영어 회화가 있으시면, 원보의 엽서 또는 inhapr@inha.com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원 | 고 | 모 | 집 ♣

원보 인하대병원은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글 재주가 없다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주변의 진찬한 이야기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적은 글은 읽는 이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어보십시오.

■E-mail : inhapr@inha.com
■보낼 곳 : 대외협력홍보실
☎ 032-890-2603

편집위원

김명석
이지현, 김필립 | 대외협력홍보실
유진희 | 간호부
강순자 | 원무보협팀

독 자 엽 서

보 내 는 사 람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08. 07. 09 ~ 2010. 07. 08

인천 우체국
제40050호

받는 사람



인하대병원
www.inha.com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인하대병원 대외협력홍보실
원보편집실 앞

4 0 0 - 7 1 1

퀴즈 퀴즈 제53회

※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퀴즈 정답과 의견을 독자엽서에 작성하시어, 원내 고객의 소리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홈페이지(www.inha.com)를 참고하시고 인터넷으로 응모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1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암의 3대 치료법은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이다.
 - ② 4차원 방사선치료는 호흡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양까지 제어하면서, 사진을 찍어 치료 시 자세 보정하여 정확도를 높인다.
 - ③ 래피드 아크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와 영상유도방사선치료가 모두 가능하다.
 - ④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래피드아크와 사이버나이프가 있다.

- 2 연령별 척추질환 및 치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10대 환자는 만성적인 요통과 흉통 호소 시에 척추측만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 ② 20대 특히 남자의 경우는 군대 전후 요통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리 저림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디스크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 ③ 30대 여성은 과도한 가사일과 육아로 인한 근육피로감으로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 ④ 60대 이후 여성은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로 골다공증이 발생하여 작은 외상으로도 쉽게 골절된다.

- 3 지난 2010년 3월 2일, 3층 대강당에서 '인하의료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제 ()대 박승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님은 취임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의료계 환경 속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효율과 생산성 향상, 변화와 혁신,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성장기반 확충과 브랜드 파워를 높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당첨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

●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Quiz 정답

1

2

3

♣ 제52회 QUIZ 정답

- ① 4
- ② 2
- ③ 래피드아크

♣ 당첨을 축하합니다

- 양승두 경기 고양시 덕양구
- 강미야 경기 시흥시 대야동
- 김태균 인천 서구 연희동
- 한선영 원무보험팀
- 황윤상 시설팀

인하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601)
-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 748-910002-39804 (예금주)인하대병원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10년 03월 10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269명	731,050,348원	625,553,546원	

◎ 기부자 현황 | 2010년 01월 16일 ~ 2010년 03월 15일 현재

일 자	성 명	약 정 액	비 고
10. 01.19	인하사회봉사단	300,000	(완납)
10. 01.29	용현운수(자)	90,000,000	제2기 건강CEO 이인철 원우(완납)
10. 02.02	송순옥	10,000,000	임상의학연구소(완납)

| 건강교실 안내 |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 - 참가비 7만원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 •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 유방암 환자의 식이 •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3/10(수), 4/14(수) 오후 2시 ~ 4시	3층 1 세미나실	(032)890-2560

| 갤러리 전시안내 |

전시 일정	제목	참여 작가
2010. 03 .20(토) ~ 2010. 04. 17(토)	'희망, 그 깊은 아름다움'	한광순
2010. 04. 17(토) ~ 2010. 05. 06(목)	어린이 그림전시회	김정희
2010. 05. 07(금) ~ 2010. 05. 29(토)	'김기범, 김은숙 동행전'	김기범, 김은숙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 대표전화 1600-8114(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심장내과 (☎2200)	이우형	*	고혈압, 관동맥질환, 고지혈증	월, 금	화	심장혈관센터 (☎2440~1)	신장이식클리닉 복막투석클리닉 (☎2535)	김문재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수			
	박금수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월, 목				김문재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수			
	권 준	*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수	월, 목			이승우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목		
	김대혁	*	부정맥, 실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수, 목	월			송준호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화		
	우성일	*	관동맥질환, 심혈관재술, 고혈압	화, 금	월, 수			주우철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목	월		
	신성희	*	심부전,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월, 화	목, 금			김철수	*	혈액학, 중앙학	월, 수	월, 수	■폐암센터	
	박상돈	*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수, 금			이문희	*	중앙학, 혈액학	수, 목	월		
일 반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화		이현규	*	혈액학, 중앙학	(월), 화, 금	수, (목)				
소화기내과 (☎2224)	김영수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내시경	월, 목	화		암센터 (☎2580) 김염내과 (☎2210~1) 류마티즘센터 (☎2210~1) 알레르기내과	김철수	*	혈액종양, 골수이식	화, 목			
	신용운	*	소화관질환, 위·대장질환	월, 금	수	내시경센터 (☎2540~1)		이문희	*	혈액종양, 골수이식	월			
	이동행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목	월			정문현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월, 목	화		
	김형길	*	소화관질환, 소화관암, 대장질환	수, 금	월			이진수		해위염수(2009, 4 ~)				
	권계숙	*	소화관질환, 변비클리닉	수, 목	화			김미정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수, 금	월		
	이진우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내시경	화, 목, 금	목			김아름		불명열, 요로 감염	화	목		
	정 석		해위염수(2009, 9 ~)					박 원	*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화, 수, 목	월	★국제진료센터	
	이정일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대장내시경	월, 수	수, 금			권성열	*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월, 금	화, 수, 목		
	방병욱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목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월, 화, 수, 목	(금★)		
	양병혁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월			윤지열		관절염, 골다공증	금	월, 화, 수		
임희환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금		일 반				금				
김용욱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알레르기내과	김철우		천식, 만성기관지,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월, 수, 목	화			
김지연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일 반			금				
정현정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화			일 반			금				
홍기연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내과계열반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호흡기내과 (☎2219)	이홍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금), 수	월, 금		■폐암센터	외과 (☎2250)	김경래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월, 수		
	곽승민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월, 화 (수), 금	수				신석환	*	소화기외과, 위암	월, 목		
	류정선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월 (화), (목)	화, 목 (월)				홍기천	*	혈관이식외과	화	목	
	조재화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집중진료의학	수, 목	월, 화 (수)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목	화	
	남해성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금	(화), (금)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목), (목)		
폐암 내과 센터 (☎3890)	이홍렬	*	폐종양	금				흉부외과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월)	□여성암센터 △비만센터 ★국제진료센터
	곽승민	*	폐종양	수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류정선	*	폐종양	화, 목	월		허은석		*	소화기외과, 위	수	화, 목		
	조재화	*	폐종양	수	월		최선근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화	금		
	이현규	*	폐종양	월	목		최윤미		*	소아외과	(수), 금	월, 수		
	남해성	*	폐종양	화, 금			김장용			혈관내치료	월, 수(★)			
	김광호	*	폐종양	화			정인오			일반외과		금		
	김정택	*	폐종양	월	목		일 반				월, 목			
	윤용한	*	폐종양	수	금		흉부외과 (☎2280)		김광호	*	폐질환, 식도질환, 다한증, 기흉	화(목), 목		■폐암센터
	조성연	*	불안장애	화					백안기	*	심장질환, 혈관질환	금	화	
당뇨내분비센터 (☎3360, 2215)	김용성	*	당뇨병, 비만, 내분비	월, 화 (목), 금	목	□비만센터 △여성암센터(갑) *국제진료센터		김정택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월(목)	월, 목(목)		
	남문석	*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화, 목				윤용한	*	폐, 식도, 다한증, 기흉	수(목)	수, 금(목)		
	홍성진	*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수, 목	월 (화), 수			신경외과 (☎2370)	박준용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월, 목	★사이버나이프센터
	김소현	*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목), 수	화, (화), 금		박형천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월, 수	수		
	이정진	*	당뇨, 내분비질환	금	월, 목		김은영		*	뇌신경외과, 뇌종양, 인면경증, 3차신경통, 소아	월, 수	월, 수		
비만 내분비내과 센터 (☎3360, 2215)	김용성	*	당뇨비만(성인)	목			박현선		*	뇌종양, 중추신경과중,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목	목(★)	뇌종양, 인면경증, 소아 신경물리치료, 재활, 소아연	
	김소현	*	성인비만, 대사증후군, 이형당뇨병		수		현동근		*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	수	월, 수		
	박지현	*	여성비만, 산후비만		월		윤송환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금	화 (수), 금(★)	수소연		
	허윤석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화			정준호	*	뇌종양, 중추신경내과수술, 뇌혈관질환	화, 금				
	최윤미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수			일 반			화	목			
성형외과 소아	김연수	*	재형형질, 유행호스 유행하고질, 부부생술		수		정형외과 (☎2380)	오인석	*	족부 및 족관절, 인공관절수술, 슬관절, 골절	월, 수	수		
	김순기	*	소아비만	금				김려석	*	스포츠의학, 관절, 슬관절, 족관절, 족관절, 관절염	목	화, 목		
	김순기	*	소아비만	금				문경호	*	인공관절수술, 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화, 목	화		
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이지은		해위염수(2009, 9 ~)					김영구	*	스포츠의학, 관절, 인공관절수술, 관절염	월, 수	수		
	이연지		인식행동요법, 체중감량 후 체력증진	월	화, 금			강준순	*	인공관절수술, 관절, 슬관절, 관절염	월, 수	월		
	일 반				목		조규정	*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축만증, 골다공증	화, 금	수			
신장내과 (☎ 2229)	김문재	*	신장질환, 고혈압	월, 목	화	혈액투석진료	이동주		해위염수(2009, 9 ~)					
	이승우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화, 금	월, 수	■국제진료센터		김범수		족부, 족관절, 소아정형, 외상	금	월, 금		
	송준호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월), 수	월, 목, 금			원만희		관관절, 슬관절, 수부, 중앙	금	금		
	주우철	*	신장질환	금	수			일 반			화, 수, 목			
신장센터 (☎ 2533)	김문재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클리닉과 병행								
	이승우	*	혈액투석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송준호	*	혈액투석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최첨단 암 치료기의 새로운 혁명! RapidArc & Cyberknife



RapidArc
Cyberknife

보다 빠르고 정확한 최신기술 방사선 치료장비 래피드아크

래피드아크는 21세기적 치료라고 각광받는 세기조절방사선 치료(IMRT)와 영상유도방사선 치료(IGRT)가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여기에 2007년 개발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치료기술인 종양의 모양에 따른 맞춤형 회전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장비입니다.

최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된 현존 최고의 암 치료기 | 무통·무혈 | '로봇 사이버나이프'

실시간 종양추적 4차원 로봇 사이버나이프는 신체 장기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스템, 척추 암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춘, 기존의 4세대 사이버나이프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4차원 사이버나이프로 실시간 영상 유도 기술, NASA의 우주 항법 기술, 컴퓨터, 로봇 팔 등의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하게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www.inha.com

IGRT센터/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방사선종양학과 032)890-3070 신경외과 032)890-2370